

東亞3國 近代 戰法形成의 軍事思想的 背景

白 奇 寅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동아시아3국의 군사전법 전통
3. 전법과 무기운용의 비교·검토
4. 결 론

1. 서 론

동아시아3국은 '西勢東漸'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鎖國'으로 응했으나 나중에는 각기 상이한 대응을 하였다. 특히, 1850년대 들어와 일본이 개국으로 전환하여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그 대응양상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는 더 이상 중화체제를 고수할 수 없었고, 그 변화는 현실적인 세력재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중국은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다가 20세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결국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상 동아시아3국은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전법상 큰 변화에 직

면해 있었다. 전통적인 병서인 『손자』와 『기효신서』의 병법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1840년대 초반에 아편전쟁을 겪고난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수용노력에 현저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서구적인 군사력 건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반면에 조선이나 중국의 군사근대화는 좀더 복잡한 국내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체되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근대화의 토대가 된 군사사상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근대로 이행하기 직전인 18~19세기에 동아시아의 군사적 전통과 전법(전략전술)체계를 개관해보고 나아가 그 양상과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이란 한국, 중국, 일본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각국의 개별적인 군사적 근대화의 실상을 비교하기보다는 군사사상적 배경의 양상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고찰해 보겠다.

2. 동아시아의 군사전법 전통

(1) 중국의 병학적 전통

18~19세기초 동아시아의 새로운 군사전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문화적 전통 위에서 서구적인 병법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군사사상적인 전통은 유사했지만 결국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각국의 군사사상적 전개양상을 개략적이거나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중국에서는 征服王朝인¹⁾ 元대에 이르러 종래 보병 중심의 전법에

1) 정복왕조란 K. A. Wittfogel이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907-1125)』의 서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중국사상 존재한 漢族 외의 異民族國家를 지칭한 것으로 遼·

다 騎馬戰術을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몽골군은 기마전술에 의한 우월한 기동력, 경계정찰능력의 강화, 선진심리전술 등의 개발·활용으로 양보다 질에 치중한 강한 전투력을 갖추었다.²⁾ 이러한 변화는 군사사상적으로 宋에서 제기된 군령권의 약화를 극복하고, 火藥과 화기의 발명에 따른 것이었다. 나아가 그것은 병학사상 宋·遼·金으로 이어진 활발한 병학의 교류와 계승에 의한 漢族의 攻守城戰法과 騎兵戰法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었다.³⁾

이어 明에서는 원 군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唐·宋 軍制의 전통을 살려 衛所制라는 독특한 군사제도를 운용하였다. 위소제는 역대 왕조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실시하던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고, '兵農一致'에 기반을 두고 직업군인으로서 고도의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군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간주되었다. 당시에 무기/장비는 종래의 冷兵器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현저한 진전이 이루어진 火器의 비중이 크게 증대된 상태였다.⁴⁾

그 무렵 전술은 보병과 기병부대가 화포·화총을 사용한 단계로서, 특히 화기와 차량이 결합되어 전차부대가 전장에 출현하게 되었다. 전차부대는 전술적으로 독립적인 화기부대를 조직하고 화기와 기동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步·騎·炮·車의 합성편제인 新京營을 운용함으로써 화기의 살상 및 파괴효과를 극대화시켰다.⁵⁾ 長城을 비롯한 방어시설 또한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동남해안에 출현한 왜구의 토벌을 기화로 海防戰術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紀效新書·練兵實紀 등에 의한 전술운용

金·元·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R. E. Dupuy and T.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 from 3500 B.C. to the pres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 p. 340.

3) 毛元佑 外, 『中國宋遼金夏軍事史』(百卷本 『中國全史』, 北京, 人民出版社, 1994), 1-2面.

4) 그 대표적인 예가 佛郎機인데, 이에 대해서는 王兆春, 『略述佛郎機炮的導入·製造和使用』, 『兵家史苑』(第二輯, 軍事科學出版社, 1990), 257-260面을 참조.

5) 拙著, 『中國軍事制度史』, 국방군사연구소, 1998, 206쪽.

과 武備志·籌海圖編·登壇必究 등에 의한 전술운용이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⁶⁾

한편, 淸은 入關 직후에 귀속된 明軍과 초모된 漢人을 군사조직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역대왕조와 만주족의 고유한 제도를 결합시켜 漢人同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군사조직의 한 유형으로 만주족의 八旗制는 전투능력은 우수했지만, 康熙·雍正帝 이후 급속도로 부패되어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전투력은 八旗에 못미쳤으나 대규모 전투에서 第一線에 배치된 漢人으로 구성된 綠營兵이 주력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팔기제는 군민합의 성격과 군사행정의 일치라는 효율성으로 인해 군사조직이 무용화되었음에 불구하고 행정기능은 民國년간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⁷⁾

대체로 淸의 군사적 수준은 明代보다 진전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군사사상은 물론 兵學研究 또한 극히 미흡하여 양·질적으로 저조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금기가 있었고, 만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騎射'를 중시한 나머지 전술·전기나 군사이론의 개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청초 화기발명가인 戴梓(1649-1726)에 의해 28발을 連續發射할 수 있는 連珠銃이 제조되기도 했지만, 이는 실제 사용되지 못했고 王室의 수장품에 불과하였다. 청조의 중기에 화기가 군대내에서 총병기류의 60% 이상을 점하게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조의 화기를 다루는 기술적 수준이나 군사술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물론 淸에서 『明史·藝文志』의 편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兵書類를 제5위에 놓았다가 乾隆帝의 주관으로 편찬된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제2위로 부상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코 적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왕조의 정치적 부패와 무능 속에서 표방된 문화정책에 따라 병서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엄단하고 군사연구를 통제함으로써 병학발전이 저지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6) 高銳, 『中國軍事史略』中,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309-310面.

7) 佟佳江, 「清代八旗制度消亡時間新議」, 『民族研究』, 1994. 5, K23, 中國古代史(二), 86-87面.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중반 阿片戰爭(opium war, 第1次中英戰爭)을 겪기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청대에는 적극적인 군사연구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⁸⁾ 병서 출간이 양적으로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⁹⁾ 내용상으로는 전대를 답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요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뒤늦게 명대 초미의 관심사이던 '海防問題'가 정책차원에서 1874-5년에 가서야 재론된 것에서도 청조의 군사정책상의 한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결국, 청은 아편전쟁 직전에 장비·무기체계의 낙후로 이미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새로운 화기가 개발되어 종래의 냉병기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었다. 주변국 일본 또한 제한된 교역이었지만 네덜란드와의 관계에서 이룩된 蘭學을 기반으로 일부 藩이 주축이 되어 서양 병법은 물론 군사제도와 화기를 적극 도입하여 자체 연구, 제작,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청은 내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 8) 1796-1820년(嘉慶年間) 사이에 민간사회의 괴폐와 사회의 혼란상을 반영한 白蓮敎의 亂이 발생하였다. 청 조정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부득이 대규모의 招募과 지방의 鄉勇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군사력에 한계가 있었다. 1840년 阿片戰爭을 통해서 武器·裝備를 비롯한 군사적인 능력 외에 정치·사회적 허실 및 지도자들의 무능력 등 청조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군사력은 1854년 太平天國의 亂이 일어났을 때에도 太平軍과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역시 鄉勇 및 團練을 기초로 조직한 湘軍과 淮軍으로 正規軍인 八旗綠營을 대신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난 후에야 비로소 청조는 新式軍隊와 海軍建設 등 軍隊改革을 추진하게 되었다(『中國軍事史』卷3(兵制),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428面).
- 9) 『中國歷代兵書目錄』에서 1840년 아편전쟁 직전까지의 병서는 101部 690卷에 이른다. 그러나 양과는 무관하게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다만, 『讀史方輿紀要』를 비롯하여 『乾坤大略』·『治平勝算全書』·『將略要論』·『兵迹』 등 군사지리서가 주목된다(高銳 主編, 『中國軍事史略』中,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429-430面).
- 10) 崔熙在, 「1874-5年 海防陸防論議의 性格」, 『東洋史學研究』第22輯(1985. 12), 85-129쪽; 王家倫, 「清季의 海防論」, 『歷史學報』12期(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1967); Immanuel C. Y. Hsü(徐中約), "The Great Policy debate in China, 1874: Maritime Defense vs. Frontier Defens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25(1964-1965), pp. 212-228을 참조.

서양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의 개발이나 생산은 후일의 洋務運動까지 유보되었다.¹¹⁾ 다시 말하면, '閉關自守'와 같은 쇄국 하에서 전통적인 방어관념을 고수함으로써 중국의 당시 군제 편제·훈련·무기체계의 수준은 냉병기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아편전쟁은 그간 청조에 만연한 군사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부패와 무능을 폭로한 역사적인 국면이 되었다. 청조의 군사적 패인은 魏天柱의 견해에 의하면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國防觀念에 있어서 내부적인 안정을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방어보다도 중시함으로써 소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치안에 치중한 나머지 국방의 핵심적인 측면인 대외방어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順治에서 乾隆에 이르는 기간, 西北·西南·南方의 用兵에 있어서 점차 '設防'이 강구되면서 '防外'를 도모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중점은 '防內'이었다. 沿海와 일부 口岸, 그리고 부분적인 內河에 대하여 水師駐防의 설치라던지 약간의 炮臺가 설치되었지만, 주된 임무는 外的 防禦보다는 走私나 해적의 횡포를 막는 일이었다. 둘째, 清朝는 中華意識을 견지하면서 鎖國論으로 일관하였고 이른바 蠻夷小邦에 대한 자만심으로 인해 對外防備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設防이 없지는 않았으나 御外的 측면에서 볼 때 근대적인 전쟁에 대한 적합한 준비는 아니었다.¹²⁾

아편전쟁을 겪고서야 비로소 중국은 洋務運動을 추진하며 군사적 근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서양병법을 비롯한 1,000여 종의 병서가 출간되었는데, 특히 외국 군사서적의 번역·군사이론의 탐구와 그 적용에 크게 경도되었다. 그러한 양상은 시기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우선, 1840년대에서 1860년대에는 서양열강을 배워서 부국강병을 추진하되 통치자들은 전통적인 정신을 고수하려는 입장이 유지되었다. 군사사상적으

11) 高銳 主編, 『中國軍事史略』下,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122-123面.

12) 魏天柱, 『試論晚清國防戰略的幾個問題』, 梁巨祥 主編, 『中國近代軍事史論文集』,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7, 112面.

로는 明代 戚繼光의 『紀效新書』가 여전히 典範이었다. 다음으로는 1870년 대로부터 1894년 청일전쟁 직전까지로 洋務運動이 발흥하여 서양의 군사 저작이 다량으로 번역·소개되었다. 江南製造局의 譯書館에서는 서양의 군사 저작 30-40부를 번역했고, 天津機器局·京師同文館·廣學會·天津水師學堂 등에서도 다수의 서양 군사서적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는 청일전쟁에서 청조의 멸망의 시기로 이때에 淸朝는 군사개혁을 단행하여 독일과 일본에서 각종 操典·專著·教科書 등을 유입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 일본의 서양 병학 수용

18세기말의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고유한 병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서양의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섭렵하고 있었다. 비록 군사조직이나 기술상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¹³⁾ 長崎를 중심으로 형성된 蘭學을 통해 점차 군사근 대화의 길을 내다보게 되었다. 물론 난학 이전에도 일본의 병학연구는 병학가의 전통으로 내려 왔는데, 德川幕府 이전의 戰國時代부터 병학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전통과 난학은 도쿠가와 막부 내내 마찰없이 공존하였다.¹⁴⁾

실상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초기에 실시된 문치정책 하에서 朱子學을 축으로 하는 호학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유학자의 중국병서 강독 및 연구가 일어났다. 이른바 '儒家談兵'의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송·명

13) Y. D. Eleanor Westney, "The Military", M. B. Janson & Gilbert Rozman, eds., *Japan in Transition : from Tokugawa to Meiji*, Princeton U. P., 1986, pp. 168-169.

14) 石岡久夫, 『日本兵法社 - 兵法學の源流と展開』下, 東京, 雄山閣, 1981, 395-403面.

15) 幕府初인 1608년, 신진유학자인 林羅山은 三代 將軍인 德川秀忠에게 『六韜』·『三略』 등의 中國兵書を 進講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이전의 兵書인 『七書』와 陰陽五行思想을 일상 생활 및 戰法에 활용한 중세의 병학적 전통을 종합한 것이었다. 武士教育을 위한 學問的 體制를 구성한 五大兵法學(甲·越·北條·山鹿·長沼流)이라는 근세병법학이 성립되어

대의 신병법서도 수입되어 복각·속간됨으로써 중국병법연구는 孫·吳·韜略類 등의 병법학이 점차 체계를 이루어갔고, 일본병서는 사본으로 교수되었는가 하면 戰記物語도 간행되어 일본의 兵法學研究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寬政(1787-1803) 이후 에도문화의 융성으로 병법학은 쇠퇴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을 받았다.

한편, 일본의 兵法學研究는 또 다른 통로로 형성된 지식체계 속에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창구로서 長崎의 개방을 통한 네덜란드와의 교류에 의한 것이었다. 화란의 병법에 주목한 北條氏長은 1650년에 『由利安牟攻城傳』을 저술하였고, 그의 손제자인 松宮觀山은 北條가 화란인에게서 극비리인 전해받은 「分度傳」을 심화시켜 1728년 『分度余術』을 저술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초 난학은 서양병법학을 일본에 수용하는 직접적인 매체가 되었다.¹⁶⁾

그러나 난학의 융성은 점차 막부체제와의 균열을 야기하는 진원이 되었다. 난학자들의 주장은 鎖國으로 일관하면서 주자학 외에는 이학으로 엄금한 막부체제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⁷⁾ 난학자들도 유학계통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문화가 서양문화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난학적 사고는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서구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18세기 말, 이제 그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럽이 일본의 모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난학은 막부의 구조와 능력을 뛰어넘어 일본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체계로 대두되어 서구

널리 보급되어 江戸時代로부터 明治時代를 풍미하였다.

16) 예컨대, 1783년 大槻玄澤의 『蘭學階梯』, 1785년 林子平의 『三國通覽圖說』, 前野良澤의 『和蘭譯筌』 등 일반 과학서적, 아울러 兵法書로서 네덜란드의 포술을 소개한 享保頃 鮎川昌行 編 『紅毛火術錄』, 1787년 志筑忠次郎 譯 『火器發法傳』, 1790년대에 前野良澤의 『和蘭築城書』와 1802년에 저술된 平山子龍 譯의 『西洋火攻神器說』, 荻生徂來 譯 『西洋火器說』, 清水正徳 譯 『西洋火器解』 등이 그것이다.

17) 石岡久夫, 『日本兵法史 - 兵法學の源流と展開』 下, 411-415面.

세계의 실상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장차 정치구조와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였다.¹⁸⁾

초기 난학자들의 주장은 이른바 '부국강병론'이었는데, 이들 중 林子平(1738-1793), 本多利明(1743-1820), 佐藤信淵(1769-1850) 등의 군사론은 대담한 것이었다.¹⁹⁾ 이들은 서구세계의 학문과 과학, 그리고 군사력에 관해 높이 평가하였다. 서구 군대나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중국이나 만주로부터 가해질 일본의 위협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 林子平이나 佐藤信淵은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였고, 중국도 일본의 잠재적인 적이라고 보아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 중국을 문명의 전수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전범상으로 이들의 견해에서는 에도시대 전기의 林羅山·小幡景憲·北條氏長·山鹿素行·香西成資·新井白石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孫子兵法研究와 달리 서양적 요소가 강조되었다.²⁰⁾ 중국병서를 비판하는 가운데 그들은 일본의 특수한 사정에 맞추어 孫子兵法을 재해석했고, 나아가 海防論을 내걸며 영토확장이나 해외팽창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병법학 수준은 대체로 1800년대에 蘭學을 통해 종래 中國兵法學的인 知識體系에서 한 걸음 나아가 西洋兵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²¹⁾

그리고 아편전쟁 직후 개항논의가 일면서 海防論이 고조되자²²⁾ 그들은

18) Hirakawa Sukehiro, "Japan's turn to the West", Marius B. Janse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5: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achusetts, Cambridge U. P., 1989, p. 439 ;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國防軍史研究所, 1997, 73쪽을 참조.

19) 松原晃, 『日本國防思想史』, 東京, 天理時報社, 1943 ; 千越重昌, 『兵學者 佐藤信淵』, 東京, 鶴書房, 1943 ;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을 참조.

20)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 東京, 原書房, 1962, 344面.

21)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67-72쪽.

22) 林子平의 海防論이 제기된 지 10년 후, 결국 文化年間に 해방문제는 조야의 초점이 되었다. 1803년(享和3年)에는 미국선박이 長崎에 들러 무역을 요구한 것을 필두로 1804년(文化元年) 러시아, 이듬해 다시 미국선박, 1805년 영국함선, 1811년(文化8年)부터 1816년에 걸쳐 러시아 함장 고로닌 및 高田屋嘉兵衛事件 등이 발생하여 일본의 근해를 둘러싼 국제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海防施策이 초미의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石

자신들의 주장을 藩體制 아래에서 적극 관철시켜 나갔다. 佐藤信淵을 비롯하여 渡邊華山(1793-1841), 高島秋帆(1798-1866), 高野長英(1804-1850), 佐久間象山, 江川垣庵 등이 그들이었다. 幕府와 대립관계에서 독자적인 개혁노선을 택하던 藩으로서의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논의는 군제개혁이나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²³⁾

결국,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병법학은 적극적인 연구나 활용은 제한되었지만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형성된 난학에 의해서 점차 서구의 과학과 군사기술이 수용되면서 서구군사론이 병학연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군사연구의 경향은 아편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에 큰 잠재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조선의 병법체계

조선에서는 임란·호란의 양란과 李适의 난·李麟佐의 난 등 內亂을 거치면서 국방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는 肅宗 집권후반기 英祖代(1724-1776)의 국내·외적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국내적으로 도성방어가 보다 중시되던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대륙정세가 불안정하여 위기의식이 일었다. 특히, 왕권을 위협한 정치적 변동으로 군사정책은 국내정치적 사정을 감안한 도성방어에 치중하면서 기존의 전법개념의 전범이던 『紀效新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조는 숙종대부터 정비된 도성방어체제를 완비하며 왕권강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즉위초부터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자 蕩平策을 시행하여 격화된 당파간의 분쟁을 완화시키면서 왕권신장을 모색하였다. 종래 五軍營의 지휘권 독립으로 정파간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

岡久夫, 『日本兵法史 - 兵法學の源流と展開』 下, 412面).

23) 朴榮瀾,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75-91쪽.

던 오군영체제는 각 군영의 지휘권을 兵曹判書의 통제하에 귀속시킴으로써 국왕의 통수권체계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영조의 즉위초 李麟佐의 난(戊申亂)은 청주성을 함락시켜 거점을 마련한 후 왕권에 정면도전한 사건이었다.²⁴⁾ 이들의 거병은 지역적으로나 참여범위에 있어서도 영남지역과 경기·호남지역은 물론이고 平安監司 李思晟의 가담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것이었고, 京鄕勢力的 포섭을 통해 王朝體制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었다.²⁵⁾ 英祖의 老論重用에 불만을 품은 少論人士들과 摠戎廳軍의 최고지휘관인 金重器를 비롯 禁軍의 일부까지 叛軍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都城守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것이다.²⁶⁾ 특히, 討伐軍의 편성과정에서는 각 군문간 지휘체제상 일사불란한 통솔이 어려워 都城守備의 허점을 드러냈다.²⁷⁾

이렇듯 戊申亂은 불만계층과 그 동조세력이 중앙정계의 변동을 이용하여 변란으로 연결된 사건으로 당시 사회의 불안정성을 대변한 것이었다. 사실 18세기경 조선에서는 농촌사회의 변동, 서민층의 신분상승, 그리고 농촌 양반층의 몰락과 閑遊者層이 증가했는가 하면 토지에서 밀려난 승려·才人·백정·巫覡 등도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양반정치의 외곽을 형성하는 胥吏·武官·譯官 등도 기성의 정치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만계층의 세력화는 내재된 위협요인이었다.²⁸⁾ 戊申亂 외에도 남인의 서울 방화계획, 淸涼山 聚會逆謀, 李之曙變亂(1748년) 등 일련의 정변·민란 등이 이를 잘 말해준다.

英祖는 王權 자체를 위협하는 內變에 대응코자 李麟佐의 亂을 계기로 강력한 군사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²⁹⁾ 군사개혁이 곧 바로 시행되었던

24)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乙丑條.

25) 『英祖實錄』卷13, 英祖 3年 10月 壬寅條.

26)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甲子條.

27) 朴光用, 「蕩平政策과 王政體制的 強化」, 『韓國史』32, 國編委, 1997, p. 71.

28) 金駿錫, 「蕩平政策과 王政體制的 強化」, 『韓國史』32, pp. 40-41.

29)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癸酉條.

것은 아니지만, 중앙군인 守禦廳과 禁軍廳의 개혁은 물론이고 지방군인 東伍軍 역시 同王 6년 「東伍節目」을 반포하여 새롭게 정비하였다. 기본적으로 隣里團結 魚鱗作隊를 원칙으로 하고 營將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東伍軍의 편성이었다.³⁰⁾ 영조 13년 禁軍節目的 개정을 통해 禁軍의 규모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³¹⁾ 이로써 국왕에 대한 병사들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군대의 탈정파를 위한 교육과 도성수비가 강화되어 갔다.³²⁾

이러한 노력은 兵曹判書의 五軍營에 대한 지휘권 강화 및 각종 병서·유교 경전류의 간행에 힘입어 병권을 국왕에게 귀일시키는 조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英祖는 임란 이전의 진법에 관심을 두어 조선전기의 『陣法』을 『兵將圖說』로 복간하였고, 1749년(영조25년)에는 『續兵將圖說』을 간행하였다. 진법류의 병서간행은 조선전기의 오위제를 복구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선왕의 위업을 재조명함으로써 국왕에 대한 병권귀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都城守備를 위해 1751년(영조27년)에는 『守城冊子』를 간행하면서³³⁾ 『爲將必覽』을 직접 撰述하여 장수의 자질향상을 비롯한 軍令系統의 개혁에 주력하였다. 그밖에 茅元儀의 『武備志』를 수입하여 간행하였고, 『兵學指南』을 복간하였다.

한편, 正祖는 즉위와 동시에 老論이 思悼世子の 죽음을 놓고 時派-僻派로 분열된 시점에서 척족세력을 제거하고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군사조직으로 宿衛所·壯勇衛·壯勇營을 설치하였고, 장용영을

30) 朴光用, 「蕩平政策과 王政體制의 強化」, pp. 72-3.

31) 『英祖實錄』 卷46, 英祖 13年 11月 戊寅條.

32) 『英祖實錄』 卷12, 英祖 12年 11月 壬辰條 ; 卷21, 英祖 21年 3月 癸未條.

33) 『守城冊子』는 『御製守城繪音』을 비롯하여 『都城三軍門分界之圖』·『都城三軍門分界總錄』·『守城節目』을 合本한 것이다. 여기에서 『守城節目』은 英祖 23년에 간행된 『守都節目』과는 달리 유사시 動員對象에 있어서 搢紳士族과 같은 兩班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姜性文, 「英祖代의 都城死守論에 관한 考察」, 『清溪史學』 13, 1997, pp. 240-2를 참조).

둘러싼 군제의 개편은 華城(水原城)의 축조로 연결되었다.³⁴⁾ 결국, 방어체제는 도성과 화성에 각각 내영과 외영을 둠으로써 종래의 오군영보다 군영을 확대한 것인데, 壯勇外營의 편제는 正祖 13년 10월 五衛法으로 완비되었다.³⁵⁾ 또한 많은 병서들이 간행되었다. 同王 20년 火藥製造法에 관한 『煮硝方』이나 華城의 築造經緯와 工事內容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華城城役儀軌』 등 築城에 관한 서적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도성방어의 정비과정에서의 전법논의는 한편으로 寧古塔回歸說과 같은 대륙정세의 불안을 둘러싼 淸의 재침 내지 蒙古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결합되어 나타났다.³⁶⁾ 그러한 문제의식은 실상 병자호란에 대한 분석과 반성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호란에서의 패배를 淸의 장점보다는 조선이 지형적인 잇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전략의 부재나 관방체제의 허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들이 군제개혁안으로서 五衛制를 언급했던 것도 그러한 전략적 논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오위제 복구는 지방의 진관체제의 복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전법체제인 『紀效新書』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³⁷⁾

『기효신서』에 대한 비판은 이미 선조대부터 북방 오랑캐의 방어를 놓고 부적합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던 데서부터 시작된다.³⁸⁾ 당시 明·淸의 교체라는 대륙적 상황에서 척법 중심의 전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심이 일었다.³⁹⁾

34) 田龜憲, 「水原城郭 築城術에 관한 研究」, 『史學志』 11, 1977 ; 崔洪奎, 「朝鮮後期 華城 築造와 鄉村社會의 諸樣相」, 『國史館論叢』 30, 1991 ; 유봉학, 「華城城役의 역사적 의의와 華城의 문화유산」, 『京畿郷土史研究』(創刊號), 1997 ; 金成潤, 「華城築造와 水原육성」, 『朝鮮後期 湯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35) 『弘齋全書』 卷十三, 「序引六·軍制引」, “外營十三哨通五邑 改司哨之制爲五衛 二十五部城丁軍及四門衛新豐衛 亦用五衛之制 蓋五衛卽祖宗朝美法而兵農合一.”

36) 『肅宗實錄』 卷13, 肅宗 8年 11月 丁卯條 ; 『英祖實錄』 卷28, 英祖 6年 12月 辛亥條 ; 『英祖實錄』 卷29, 英祖 7年 6月 乙未條.

37) 拙稿, 「18세기 오위·진관체제론에 대한 일고찰」, 『청계사학』 제17집, 2001.

38) 『宣祖實錄』 卷39, 宣祖 38年 9月 28日條.

39) 『宣祖實錄』 卷41, 宣祖 40年 2月 13日條.

그후 陣法問題는 肅宗代에 들어와서 李濡·申琬 등이 良役改良·經費減縮·戶布法의 시행을 둘러싸고, 五軍營制의 개편과 威法批判 및 陣法體系의 검토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王鳴鶴의 방대한 저술인 『登壇必究』를 19권의 『壇究捷錄』으로 편찬한 崔國亮은 威繼光法이 島夷를 제어함에는 적합하지만 山戎를 제어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五衛法의 復舊를 주장하였다.⁴⁰⁾ 朴世采도 자신의 時務策에서⁴¹⁾ 『紀效新書』에 관한 戰法的 보안을 위해 전통적인 陣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南防 중심의 威法과 北防 중심의 陣法의 보완적 기능은 이후 英·正祖代 都城防衛戰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⁴²⁾

『紀效新書』에 대한 비판의 현실적 결실은 1789년 正祖때 李德懋·朴齊家·白東脩 등이 찬술한 『武藝圖譜通志』로 결집되었다. 『武藝圖譜通志』는 陣法 외에 器械, 그리고 韜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陣法을 전면 검토한 것이다.⁴³⁾ 여기에는 『紀效新書』는 물론 기타 王圻의 『三才圖會』, 威繼光의 『紀效新書』, 茅元儀의 『武備志』, 蔣廷錫의 『圖書集成』 등 225종에 이르는 광범한 자료가 동원되었다.⁴⁴⁾

이렇듯 『紀效新書』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武藝圖譜通志』에서 인용하고 있는 威繼光과 茅元儀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찬술자들은 威에 대해 兵部尙書 邢玠⁴⁵⁾의 말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이 칭하기를 적

40) 『肅宗實錄』卷61, 肅宗 44年 6月 癸巳條. “國家之所用威繼光之法 雖足以制島夷 不足以制山戎 今之所可憂者 惟在於此 欲制山戎 必復五衛法而後 可也.”

41) 『肅宗實錄』卷19(補闕正誤), 肅宗 14年 6月 14日條(乙卯). 朴世采의 時務 12條.

42) 『弘齋全書』卷九, 「序引二·軍旅大成序」. “至若我朝 則罷五衛而創三營 遂使兵農爲二岐 而得失之分 從可知矣…以我國土疆 北接建州 南近日本 防禦戰伐之往蹟 皆可以爲法於來後也.”

43) 『武藝圖譜通志·序』, “然其衝內攻外之具, 不得不以手是器械爲資藉, 而行陣之無敵專係於擊刺之便捷淪兵之序, 何獨不然. 苟回此書之行而中尉材官日慣龍虎之韜引關蹶張咸得玃貅之士, 以不負國家繼述作成之本意, 則億年修教明諭之實, 固亦即此乎在焉哉.”

44) 『武藝圖譜通志·兵技總叙』

45) 邢玠는 1599년 윤4월에 중국 황제가 朝鮮의 정유재란에 의한 倭의 침입을 평정했다는 조칙을 선포한 뒤에, 5월에 東征善後事宜十事를 조목별로 10개항의 조처를 개진한 바 있었

장군은 남방에서는 크게 추송하지만 북방에서는 그 공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紀效新書』 18편은 閩지방(福建)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練兵實記』 9권은 薊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紀效新書』가 海寇防禦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그 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되었던 것이다.⁴⁶⁾

실제로 조선 후기 軍事敎範은 『紀效新書』를 절록한 『兵學指南』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이었다. 英祖 18년 8월, 『兵將圖說』을 두고 벌어진 문답에서는 당시 軍陣에서는 『兵學指南』 외에 他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⁴⁷⁾ 英祖는 陣法刊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戚法中心의 戰法體系에 회의적이었으며, 『兵學指南』을 주석한 李象靖도 戚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⁴⁸⁾ 이 같은 戚法批判은 대체로 『紀效新書』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軍제상 五衛制 및 五衛陣法의 復舊로 연결되었다. 『演機新編』을 저술한 安命老는 戚繼光法은 도리어 국초 五衛의 舊制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여러 병서 중 兵法에 관한 사항과 음양가의 군사관계 천문법 등을 간추려 정리하였다. 戚法의 이 같은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 假想敵國이 변화된 주변정세의 인식에 따른 전법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척법을 변용한 조선적 전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英祖代 宋奎斌(1696-1778)의 문제제기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척법을

던 인물이다(『明實錄』 萬曆 29年 2月 辛卯條. “兵部覆奏 經略督撫官刑玠萬世德 條陳朝鮮善後事宜”).

46) J. K. Fairbank, “Introduction: Varieties of the Chinese Military Experience”, A. Kierman et al. ed.,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 26 ; 拙著,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1996, p. 42, 63.

47) 『承政院日記』 乾隆 7年 8月 庚戌條.

48) 『兵學指南演議』, 『場操程式·兵制注』, “余嘗聞戚子與或人問對之說…若夫北方乎曠地形既殊虜馬動以萬數衆寡, 亦異豈可以用此乎. 或人問如何而可戚子未及對, 又問他事惜乎. 或人之不爲更問者蓋緣北兵之節制易於南兵而不足學歟. 抑亦戚子但知南制不曉北制, 故不對歟.”

변용한 새로운 진법으로서 常勝陣을 개발하여 『紀效新書』의 문제를 보완·개선하고자 하였다.⁴⁹⁾ 『紀效新書』에 대한 비판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鄭尙驥(1678-1752)를 비롯하여 19세기초 丁若鏞에 이르기까지 국방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논자들에게 의해 계속되었다. 특히, 정상기는 『기효신서』의 「練將篇」에서 척계광도 자신의 저술을 南防, 즉 바다의 왜적과 대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陣圖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음을 지적하고 南防을 목적으로 한 척법이 조선의 전략적 지침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⁵⁰⁾ 결국 진법 논의는 조선 후기의 현실과 결합되면서 민보방위라고 하는 이른바 '향촌방위론'으로 귀결되었다.⁵¹⁾

이 같은 鄉村防衛論은 이후 丁若鏞의 民堡防衛論으로 발전하여 더욱 체계화되었다. 향촌방위론은 다시 적극적인 외침방위론으로 진전되었고,⁵²⁾ 후일 개항직전 洋擾過程에서 국가상비군의 군제개혁안에 포괄되어지면서 軍事思想的 發展으로 나타났다.⁵³⁾ 그것은 丙寅洋擾 以後 申櫨이 추진한 군

49) 『風泉遺響』, 「新製常勝陣圖歌」, “聖教有曰, 威繼光陣法, 便於禦倭, 不利於防胡, 命諸將確議變通…何意今日常勝陣之作, 實爲禦虜而適符於當日確議 變通之聖教, 是豈偶然也哉.”

50) 『農圃問答』, 「論陣法築城墩」.

51) 여기에 대해서는 치밀한 분석이 요구되겠지만, 지방군의 운영이 부실한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79쪽 이하 참조).

52) 丁若鏞의 民堡論은 군제상의 어떤 이상적인 원칙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理想的 復古論이 아니고 오히려 官·민간의 괴리가 심화된 당시의 사회성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타결을 모색한 現實主義的 改革案이었다. 丁若鏞의 民堡論과 民堡論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鄭景鉉, 「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을 참조.

53) 茶山の 민간방위에 관한 저술인 『民堡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明代 茅元儀의 『武備志』라던지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尹耕의 『堡約』 등은 모두 당시 중국과 조선에서 식자층에 의해 민간방위에 관한 관심을 계고시켰으며, 진법상으로 海防論의 차원과 결합된 새로운 인식이었다. 사실 明末 武備가 해이해지고 內外多事한 상황에서 民堡防衛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결국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부각된 海防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중국에서 鄉兵의 존재가 이러한 민간방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을 비롯한 외부 침략세력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었다는 점도 결코 이런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團練이나 鄉勇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拙著, 『中國軍事思想史』, p. 228 : 拙著.

제개혁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⁵⁴⁾

이러한 조선후기의 군사전법은 결국 都城防衛戰略으로서 海防論의 의미, 五衛制를 골간으로 하는 군제에 대한 이상적 복구, 그리고 이를 보완하고자 전통적 陣法의 기초 위에 新火器의 운용을 감안한 新陣法을 통해 全國的 國土防衛를 도모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한 군사사상적 의식은 丁若鏞을 거쳐서 申櫨에 의해 발전, 종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假想敵이 西洋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申櫨은 서양식 화기나 전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⁵⁵⁾ 이러한 변화는 이미 1840년대 阿片戰爭을 겪으면서 일기 시작했던 대외위기에 대한 '內修的 對應'보다⁵⁶⁾ 일 보 전진된 것이었다.

3. 전법과 무기운용의 비교·검토

이제 동아시아3국이 전투에서 실행했던 전법 및 무기/장비를 운용한 전술적 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兵學論은 군사력 건설이나 운영을 둘러싼 이론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적인 전투력은 결국 火器 및 戰法(戰略戰術)의 운영이 동시에 발휘되는 전투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8세기 전후에 조선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없다. 다만, 17세기 이전 3국이 관계된 壬辰(丁酉)倭亂과 그 이후의 전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3국의 군사적인 전략전술과 그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中國軍事制度史』, pp. 271-2을 참조.

54) 『高宗實錄』卷4, 高宗 4年 1月 16日條.

55) 申櫨, 『琴堂初藁』, 『論兵事疏』.

56) 閔斗基, 『十九世紀後半 朝鮮王朝의 對外危機意識 -第一次, 第二次 中英戰爭과 異樣船 出沒에의 對應』, 『東方學志』第52輯, 1986.

먼저, 壬辰(丁酉)倭亂 당시 전법의 특징은⁵⁷⁾ 碧蹄館戰鬥을 비롯하여 攻城戰으로 대표되는 晋州城戰鬥, 蔚山의 攻防戰, 그리고 泗川戰鬥 등에서 드러난다. 그 무렵 조선의 전법은 水軍의 경우 전세를 역전시킬 정도로 制海權을 장악하는 수준이었지만,⁵⁸⁾ 陸戰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전법이 팽팽하게 대결하는 양상이었다.⁵⁹⁾

당시 일본군은 源平時代 이래 점차 발달한 編成法을 운용하였다. 그 편성은 土와 足輕(卒) 二階級으로부터 성립한 것으로, 전자는 騎士와 徒土로 구분되었고 후자는 鐵砲·弓·槍·昇 등의 組로 나뉘었다. 양자는 모두 槍을 주무기로 했는데, 전투방식은 兩軍이 二-三町의 근거리에 접근하여 鐵砲 足輕이 제1선에 전개하였다가 앞에서 100m 내외의 거리에서부터 鐵火를 발사하고, 弓足輕은 탄환장전의 간격에 矢를 쏘다가 적에 접근하여 돌격의 기회가 생기면 槍足輕과 槍士의 간격으로부터 돌진하여 적과 백병전을 전개함으로써 승리를 결정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편제는 幕府의 將軍마다 각기 달랐지만, 文祿後 高橋宗茂·高橋統虎 형제가 가한 軍役은 총 3,000명으로서, 여기에는 전투원인 步士·騎士 각 150명, 鐵·砲足輕 200명, 弓足輕 100명이 있었다. 전투원 총수는 1,400명이었고 나머지 1,600명은 雜卒·小者·輸卒類 등이었다. 따라서, 槍 800명, 鐵砲 200명, 그리고 弓 100명으로 銃數는 전체의 1/7이었고 전인원의 1/15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明軍은 步軍과 馬軍의 두 兵種으로서 1營의 인원은 步·騎兵

57) 壬辰倭亂에 대한 戰法에 관한 연구로는 日本歷史地理學會, 「朝鮮役に於ける兵器と戰法の變遷」, 『日本兵制史』, 1949, 141-158面; 參謀本部, 『日本の戰史』, 東京, 德間書店, 1965을 참조. 한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전략전술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제출된 바 없다. 다만 중국에서는 楊昭全, 「論明代援朝御倭戰爭的几个問題」, 『中朝關係史論文集』,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88, 100-160面; 李光濤, 「朝鮮『壬辰禍亂』研究」,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7; 한국에서는 李炯錫, 『壬辰戰亂史』上·中·下, 新現實社, 1974가 참고된다.

58) 三軍大學 編著, 「明室援朝抗日戰役」, 『中國歷代戰爭史』(第四十冊),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9, 473面.

59) 伴三千雄, 「朝鮮役に於ける兵器と戰法の變遷」, 『日本兵制史』, 142-143面.

2,699명이었고, 銃手 1,080명, 殺手(藤牌·長槍鐵鉞·大棒·狹筥의 5兵器로 나뉨) 1,080명이었다. 明軍은 戚法을 戰法으로 구사했는데, 이는 方陣(橫隊縱隊)으로써 적에 대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銃手が 제1선, 다음에 快銃手, 火箭手, 射手, 大棒手 등 5線을 운용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명군의 전법은 戚法을 활용한 密集大形을 유지한 공격술이었다.

그러면 전형적인 野戰이었던 碧蹄關戰鬪의 전투경과를 통해 드러난 중국과 일본의 전법을 중심으로 양국 전법에 대해 살펴보자. 高陽附近에서 벌어진 遭遇戰이었던 이 전투는 앞서 2회의 平壤戰에서 先頭明軍을 격퇴하고도 後續明軍에 의한 총공격에 의해서 일본군이 패퇴하고 말았던 전투와는 상황이 달랐다.⁶⁰⁾ 碧蹄關戰鬪는 步兵 중심의 일본군이 대부분 騎兵으로 구성된 명군과 행한 전투방식, 명군의 밀집대형전술에 대한 一騎打法으로부터 점차 진보된 '團隊의 大形'을 취하게 된 일본군의 대결, 그리고 명군보다 우수한 銃數의 위력효과라는 측면에서 전법상 흥미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⁶¹⁾

이 전투에서 명군과 일본군의 병력은 양군이 약 2만명으로서 필적하였고, 명군이 砲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일본군은 銃을 주무기로 하였다. 일본군은 선봉대 약 2만명 가운데 1,300-1,400정의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군은 銃數가 극히 적었고, 그것도 萬勝佛郎機銃이었으며, 1母銃-3子銃을 포함하고 있었을 뿐이다. 砲는 大將軍砲·佛郎機砲·霹靂砲·威遠砲·虎蹲砲 등 충격에 의한 攻城에는 효과적이었으나, 野戰에서는 大將軍 등 巨砲로서 무겁고 정확성이 떨어진 비파열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日本軍은 능숙한 銃火로써 明軍을 압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지형을 이용하여 적군을 狹隘地에 밀어넣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明軍의 長技인 馬兵의 기동성을 봉쇄하였다. 지형적으로 볼 때, 礪石嶺 북쪽은 평지가 동서로 이어져서 明 騎兵의 機動力과 突擊性이 보장될 수 있

60) 三軍大學 編著, 『明室援朝抗日戰役』, 217面.

61) 伴三千雄, 『朝鮮役に於ける兵器と戰法の變遷』, 144-146面.

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望客峴 북쪽으로부터 高陽附近을 거쳐서 惠陰嶺 아래에 이르는 폭이 6-7町에 불과한 狹隘地을 이용, 望客峴 아래를 필사적으로 고수하면서 左右의 迂廻攻擊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둔 전투였다. 요컨대, 碧蹄關戰鬪는 鳥銃을 주무기로 한 일본군의 전술적 운용능력이 효과를 거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壬辰倭亂시 주무기는 일본군이 鳥銃이었고, 조선과 명군은 大砲였다. 당시 砲보다 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진보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특히 일본군은 휴대에 편리할 뿐 아니라 살상력도 높은 뛰어난 장점으로 인해서 野戰城寨에 이를 중용하였다. 일본군은 실제로 弓槍을 감소시킨 반면 銃數를 증가시켰다. 뒤에 丁酉再亂(慶長の 役)에서 立花宗茂는 6월 2일에 각 부대를 구분하는 명령조치를 내렸는데, 將士 212명, 兵卒 1,153명, 雜卒 1,242명 등 총 2,600명 가운데 鐵砲卒 350명, 弓卒 91명, 鎗卒 640명이었으므로 銃數는 약 80%의 증가를 보였으며, 戰鬥員은 지난 전쟁 때보다 75%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임진왜란시 明軍과 日本軍의 접전에서 결정적인 勝因은 武器에 있어서 砲나 銃이나 하는 것이었고,⁶²⁾ 이것은 어떠한 전술을 운용하면서 火器와 戰術을 配合하느냐가 전투의 성패를 결정지었음을 보여주는 바다.⁶³⁾

62) 伴三千雄은 倭亂에 대한 평가로, 明軍의 密集大形에 의한 전투가 당시의 병기로써 가장 유리한 전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본군에게 集團戰術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 艦船의 취약성을 알고 조선이나 명의 조선술을 수용하여 洋式과 함께 寬永 鎖國令이 발포되기까지 巨船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銃을 가장 주요한 병기로 활용하였다는 점 등의 군사적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한다(伴三千雄, 「朝鮮役に於ける兵器と戰法の變遷」, 157面).

63) 碧蹄關戰鬪는 申砮의 忠州戰鬪와 마찬가지로 陸戰의 전투에 있어서 달라진 倭軍의 전술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패전이었다. 실상 明軍은 騎兵을 주로 하는 長兵戰術에 의존하는 北兵과 篋·箆을 운용하고 對鳥銃術을 개발하여 활용한 南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南兵만이 倭軍과의 대결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平壤戰에서 최초 李如松의 北兵은 倭軍의 접근에 실패하였고 南兵에 밀려서야 倭軍은 비로소 퇴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南兵이 아닌 北兵運用은 初期 中國軍의 전술상 결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李泰鎮,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몇 가지 문제」.

丁酉再亂시에 일본군과 명군이 정면으로 격돌한 平野戰인 稷山戰鬪 또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야전이었던 稷山戰鬪는 양군의 火力과 戰鬪意志에 의해서 전세가 결정지어진 전투였다. 5만명의 병력으로 朝明聯合軍 4,000명이 공동방어를 맡았던 南原城을 점령한 일본군은 稷山 남쪽 1km지점에 진영을 구축한 明軍과 접전하게 되었다.⁶⁴⁾ 일본군의 선견 부대가 선제공격을 가했고 초총사격과 동시에 장검으로 돌진했지만, 明軍은 포격으로 대항하였고 백병전으로 맞서 일본군과 대적하였다. 이어 明軍은 騎兵 2천명이 증원되었고 일본군 마찬가지로 騎兵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결국 騎兵 위주의 明軍이 步兵 위주의 日本軍을 격퇴시켰다.⁶⁵⁾ 明軍의 병력은 겨우 4천명이었고, 日本軍이 1만명으로 수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明軍의 밀집된 화력과 기동성 있는 騎兵에 의한 전투력은, 鳥銃으로 무장한 경량화된 步兵 중심의 일본군을 제압함으로써 평지의 정면대결에서 明軍이 日本軍보다 우세한 전투력을 보여준 실예가 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碧蹄關戰鬪는 日本軍이 지형에 적합한 전술적 운영을 통해서 明軍의 火力을 제압하면서 鳥銃에 의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戰場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明軍의 砲와 騎兵 중심의 전투력이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아시아 전법체계의 전개 양상은 당시 서양에서 진전되고 있던 전법의 양상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차이를 서양의 군사적인 전법을 특징지우는 전투대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양에서의 18세기 전쟁술은 일반적으로 17세기와 달리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90, 217쪽(『軍史』 創刊號, 1980)을 참조.

64) 丁酉再亂時 일본군은 전투에 慶尙·全羅·忠淸 3도의 점령을 목표로 右路軍 64,300명, 左路軍 49,600명, 水軍 7,200명 등 총병력 121,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和議가 결렬되자 明軍 역시 전투준비에 들어가 조선이 심각한 공황에 빠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主和派 石星 및 沈惟敬 등을 체포하면서 對日作戰態勢를 공고하게 다졌다. 兵部尙書 刑玠를 薊遼總督, 麻貴를 備倭大將軍 및 朝鮮提督으로 삼고서 전시에 軍政과 戰地軍令을 통일하고, 明軍은 조선원병을 東征軍이라 하고 60,000명의 규모를 구성한 상황이었다.

65) 三軍大學 編著, 『明室援朝抗日戰役』, 436面; 『宣祖修正實錄』 卷31, 宣祖 30年 9月條; 『燃藜室記述』 卷17, 素沙之捷.

전투에서 창병(pikemen)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정방형 밀집대형의 전투대형이 선형으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⁶⁶⁾ 예컨대, 네덜란드의 모리스에 의해서 10열횡대, 스웨덴의 구스타부스 아돌푸스에 의해서는 6열횡대, 그리고 다시 화력의 개량과 함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3열로 진영의 깊이는 훨씬 얕어져 완전한 선형대형(linear formation)으로 바뀌게 되었고 대신 대형의 길이는 그에 비례해 길어지고 있었다.⁶⁷⁾

이러한 西洋의 戰法發展史에 의하면, 壬辰倭亂시에 明軍이 사용한 密集大形戰術도 결국에는 화력의 개량에 의해 線形大形인 散開大形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일본군이 사용한 편성법이 더욱 일반적인 전투대형의 발전적 추이에 적합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프랑스대혁명 이후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군대들의 보편적 전술은 보병의 산개대형 전술이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상에서 무기와 장비의 발달은 새로운 전술의 개발을 선

66) 이러한 18세기의 전술상 변화는 17세기경의 개인화기인 머스켓의 개량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종래 도화선을 사용하는 격발장치를 가진 火繩銃(matchlock)을,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싷돌을 때릴 때 만들어지는 섬광으로 화약을 터뜨리는 새로운 격발장치를 사용하는 燧石銃(flintlock)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화승총을 사용하는 경우 불발률이 높았고 따라서 적기마병의 돌격에 취약하였으므로 밀집대형을 이룬 창병의 보호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수석총을 사용하는 소총(musket)의 개발로 소총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소총수만으로 이루어진 전투대형을 형성시켜 창병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179쪽).

67)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군대는 선형대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로 보병의 공격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형으로 포진한 대부대의 이동은 대단히 느렸고 회전을 위해서는 광활한 지역이 필요하였다. 또한 퇴각하는 적군을 추격, 궤멸시키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병력상실로 인해 일단 상실된 병력의 보충이 쉽지 않았다. 프로이센의 군대는 프리드리히에 의해 대회전을 위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의 적들은 대회전을 피하는 대신에 회전을 위해 포진하는 병사들을 교란하는 소규모 전초전(skirmish)이나 보급로의 차단 같은 전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법은 프로이센과 오랜 적대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에 의해 공식 전술교리로 발전, 채택되어 뒤에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경직된 대형으로만 움직이는 프로이센군을 패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전법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180-2쪽을 참조).

도한다.⁶⁸⁾ 무기의 발달에 따라 화력이 강력해지고 점차 산개대형화하는 추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밀집대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에서는 보병이 전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고수하면서도 근대적인 화력의 발달로 인해 보병 전투병력의 집중적인 운용이 곤란해지자 적의 강력한 화력에서도 보병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혁명의 성과에 따라 기관총이나 수류탄이 개발되는 등 화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보병의 밀집대형과 공격력, 그리고 왕성한 공격정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⁶⁹⁾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화력이 戰場을 압도하고 보병이 더 이상 '전투의 여왕'일 수 없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르기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쌍방 모두 수많은 보병들이 상대측의 화력으로부터 희생당하는 현상을 낳게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전격전(Blitzkrieg)의 전략을 개발하여 이 같은 전술상의 곤란을 극복하였다.⁷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壬辰倭亂 당시 明軍의 密集大形은 집중의 효과를 이용하여 살상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군사사적으로 전대와 다른 전술운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鳥銃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의 무기체계는 상대적으로 기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전술적 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⁷¹⁾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전법의 추이는 壬辰倭亂을 통해 밀집대형화한 중국식 陣法, 그리고 서양식 조총활용을 통한 기동성의 보장을 중시한 일본식 전술운용의 정면충돌이었다.

68) 李鍾學, 『現代戰略論』, 博英社, 1972, 208쪽.

69) Ernst L. Presseisen, *Before Aggression : Europeans Prepare the Japanese Army*,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5, pp. 80-82 ;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448-451쪽.

70)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450쪽.

71) 拙稿, 『明治初 韓國侵略에 대한 日本軍部の 役割』, 『軍史』 第30號, 131-139쪽.

결국 壬辰倭亂에서 드러난 중국과 일본의 戰法的 경향은 장차의 군사적 발전의 궤적을 전망하게 하는 단초였으며, 적어도 18세기말을 정점으로 그 경향은 더욱 분명해지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군사상의 질적 차이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일본은 蘭學을 통한 서양군사에 대한 이해를 1850년 이후 諸藩과 幕府에서 각각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제도를 직접 수용하여 군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明治維新 이후 1870년경 신정부하에서 山縣有朋의 주도로 독일식 군제를 수용하여 서양식 군제로 개혁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군사적 근대화에 접근하였다.

이와 반면에 중국과 조선에서는 군사적 근대화의 시기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 역사상 중국과 조선에서 근대군제, 즉 서양식 군대가 형성된 것은 이미 일본에서 서양식 군제에 의해 군사적 근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였다. 중국은 제2차 중영전쟁 직후에야 비로소 海槍隊를 건설하면서 서구적인 군사화를 시도했는데, 1863년 이후 영국군을 비롯한 외국군사고문의 활동이 있었으나 서양식 군제에 의한 강력한 군제개혁은 1895년 新建陸軍이 건설된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⁷²⁾ 조선에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뒤늦은 1881년 別技軍을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1898년 侍衛聯隊를 증가하고 元帥府를 설치하면서 점차 근대적 군제로 변모해 나갔던 것이다.⁷³⁾

한편, 1894년 淸日戰爭에서는 앞서 언급한 密集大形과 散開大形の 이점이 동시에 활용되는 일본군의 전술적 운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된다. 당시 전투에서는 산개전투를 수행한 후 다음에 밀집부대의 충격을 가지고 공격하는 전투방식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주요 화기는 18년식 村田銃과 18년식 野·山砲로서 각기 간단한 구조의 단발총이었으나 위력은 결코 열강의 무기에 뒤지지 않았다. 전투방식은 보병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면서 접근

72) 拙著, 『中國軍事制度史』, 272-280쪽.

73) 鄭求福, 『甲午改革 以後의 新軍制』, 『韓國軍制史』(朝鮮後期編), 1977, 318-398쪽.

하고 점차 돌격거리에 들어가 '백병전'을 통해 적과 접촉하여 대결하는 것으로 露日戰爭이라던지 현대전 전법의 기본원칙과 합치되었다.⁷⁴⁾

이렇듯 중국과 일본의 兵學 전통과 역사적 전투의 실예에서 18세기 전후 朝鮮의 戰法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조선의 전법은 宋奎斌의 常勝陣論에서와 같이⁷⁵⁾ 明의 戚法體系에 대한 비판 위에 전통적인 陣法을 결합시켜 보완하면서 常勝陣法을 개발한 陣法的인 完整性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倭亂以後에 일본군이 明軍의 密集大形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常勝陣 또한 密集大形을 활용한 이상적인 陣法(전투 대형)을 모색한 일면이었다. 송규빈의 병학연구는 적극적인 무기와 전법의 개발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조건하에서 수준높은 병학적 이론을 정립해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과 달리 조선과 중국의 군사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더 강한 동양적인 군사적 전통의 틀 속에서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그들의 군사적 근대화가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이라는 외압이 가시적으로 다가온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⁶⁾ 그러나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양은 전

74) 渡邊錠太郎, 「明治維新以後に於ける我國陸軍戰法の沿革に就て」, 『日本兵制史』, 293-294, 296-297面. 여기에서 전투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병은 적전방 1500-1600미터 혹은 7-800미터 지점에서 散開하다가 1000-600미터 지점에서 사격을 개시한다. 이어 보병 상호간에 엄호사격을 하며 전진하다가 적에 접근하면, 축차적으로 후방의 밀집부대를 전방에 증가시켜 300-100미터 지점에서 적을 향해 용감하게 돌격한다.

75) 宋奎斌의 常勝陣에 관해서는 拙稿, 《18世紀 宋奎斌의 國防論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0을 참조.

76) 여기서 참고적으로 동아시아의 近代移行期에 있어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 당시 군사력은 東洋國 가운데서 朝鮮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약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韓·中·日 삼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대비하기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비교된다. 淸日戰爭 직전의 자료로 1881년 출간된 『隣邦兵備略』 및 1892년의 栗原亮一의 『軍備論』에서는 淸의 병력을 100여만명, 日本의 병력을 6만명 정도로 산정하였다(小山弘健, 『近代日本軍事史概說』, 東京, 伊藤書店, 1944, 234-235面 ; 朴榮濬, 『明治時代 日本軍隊의 形成과 膨脹』, 423쪽).

술적인 발견에 앞서 서양의 기술력과 산업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서구적인 군사력의 위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18세기말 동아시아국은 각국의 병학적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장차의 군사적인 전개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예고하고 있었다. 만주족인 淸은 漢族에 대한 同化政策을 추진하면서 兵事問題에 대한 엄단과 정치적 부패 등이 겹쳐서 전대인 明代의 군사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전법적으로도 『紀效新書』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조선 역시 일부 논자에 의한 군사전법상의 개혁론이 주목되는 바였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비록 외적으로는 막부체제와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았지만, 蘭學을 통해서 서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지식·기술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잠재역량을 확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아시아국의 군사력의 편차는 결국 아편전쟁 직후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후 얼마있지 않아 무력을 앞세운 개항요구와 불평등관계를 강요당하는 역사적 국면을 맞게 되었다.

4. 결 론

동아시아국은 전통적으로 유사한 군사사상적 환경에 있었으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부터 그들이 처한 사회적, 대외관계의 차이로 군사적으로 다른 양상의 역사적 전개를 경험하였다.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병법학연구가 전문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었고, 특히 나가사키(長崎)를 비롯한 개항지역을 중심으로 서양병법학을 수용할

국 가	인 구	육해군	인구대비	세 입	육해군 비용	세입대비
淸 國	402,734,977	1,469,250	0.4	99,222	36,379	36.7
日 本	39,000,000	67,188	0.1	84,746	24,550	29.0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른바 '蘭學'은 일본의 군사사상적 통합의 기반이 되었다.

임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중·일 3국의 군사전법은 대체로 육전에 서는 조선이나 명군이 戚法을 구사하면서 方陣과 5線에 의한 밀집대형 중심의 공격술을 운용한 반면, 일본군은 土와 足輕으로 편성된 조직에다 소총을 주무기로 지형을 이용한 전술적 운용을 하였다. 일본군은 소총을 주무기로 하면서 명군의 기동력과 충격력을 따돌리고 명군을 협애지에 몰아 넣어 좌우의 우회공격으로 승리했던 것이다. 예컨대, 壁蹄關戰鬪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정유재란 시에는 평야전인 稷山戰鬪가 말해주듯 명 기병은 밀집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조총으로 무장한 경량화된 보병 중심의 일본군을 제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전투에서 조선을 포함한 중국이나 일본의 전법이 화력의 집중 또는 기동력의 운용, 나아가 지형적 조건에 부합되는 전술적 구사 등에 의해 성패가 가능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당시의 서양은 화기의 개발과 더불어 점차 전투대형에 있어 10열·6열 횡대를 거쳐 선형대형으로 바뀌어가던 상황이었다. 이는 대형의 산개화를 의미하는데, 화력이 우수한 무기의 개발에 따른 자연스런 전술 추세였다. 그러나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은 화력의 발달에 의한 보병전투병력(밀집대형)의 집중운용을 포기하지 않고 현대전에 와서 전격전(Britzkrieg)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서양에서 화기의 발달과 전투대형의 산개대형으로 변화, 나아가 집중운영 등은 군사적인 전법의 추이가 '화력의 수준'을 놓고 산개 내지 집중이라는 전술적 운용의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밀집대형에 의한 중국식 진법운용과 조총에 의한 기동성을 이용하는 일본식 전술운용을 결합한 형태였다고 이해된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밀집대형과 산개대형을 동시에 구사했다는 사실에서 일본식 전술운용의 특징이 드러난다. 일본은 노일전쟁을 전후로 전투방식을 보병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면서 접근하다가 돌격거리에서 백병전을 통해 적과 접적하는

현대전 전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중국이나 조선의 전법은 한때 척법의 변용론이 조선에서 일어 常勝陣과 같이 화력을 겸한 밀집대형을 활용한 전투대형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양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화력의 발달'에 의한 전술적 운용이나 그것을 결합시키는 전법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이러한 동아시아3국의 전법상 차이가 결국 각국의 현실적인 군사력과 군사조직의 근대화 방향과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3국의 군사적 근대화의 물리적 배경, 전개와 양상, 그리고 그 특징과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전법, 병서, 기효신서, 진법, 군사적 근대화

K C I

<ABSTRACT>

The Military Intellectual Background of China-Korea-Japan in Modern Transition Era

Baek, Ki-in

This article examines a military intellectual background of 3 nations in East-Asia(such as China·Korea·Japan) in Modern Transition Era. To achieve this purpose, I conducted comparative-analysis into history of military strategy & tactics of each nation before Modern Era.

Traditionally, 3 Nations were similar to military environment, but Japan opened Port Nagasaki and imported western advanced sciences and technologies since Tokugawa Bakufu(德川幕府), especially military arts of western style. It was called 'Rangaku(蘭學)', which was to be a integration of military intellectual background in early modern Japan. This phase of military intellectual background was different from the others.

When Japanese invaded Korea in 1592 and 1597, the Navy of the Chosun dynasty was very instrumental in leading those battles to victory, on the contrary the ground forces were defeated by Japanese. But in some cases, the Combined Forces(CF) of Ming(明) & Chosun(朝鮮) got a victories by means of condensive handling of weapons and strength. As well as CF, Japanese was defeated to CF by mixture of major wepon 'matchlock' and detour tactics. Considering this fact, I think that 3 Nations would have had some good or bad charatristics of military arts.

As a result, at that time, the military arts of China-Korea was so called 'the system of chuck-beob(戚法)' & its advanced military formation, and

Japan transformed traditional formation into the linear formation. Japanese linear formation, imported from the western world, was seemed to be a symbol of changes and differences, to the others in East Asia. That could be developed in succession and in the background since early modern era. That was a base of military modernization in each nation.

Key Words: Military strategy & tactics, Military training & tactical manual, Jixiao-Xinshu, Jin-beob, Military modernization

K C I